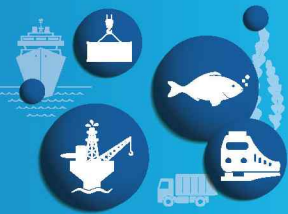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 21-6 호
 2021년 3월 31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 중~유럽 화물열차 운행량 및 '컨' 운송량

(단위 : 편, 만T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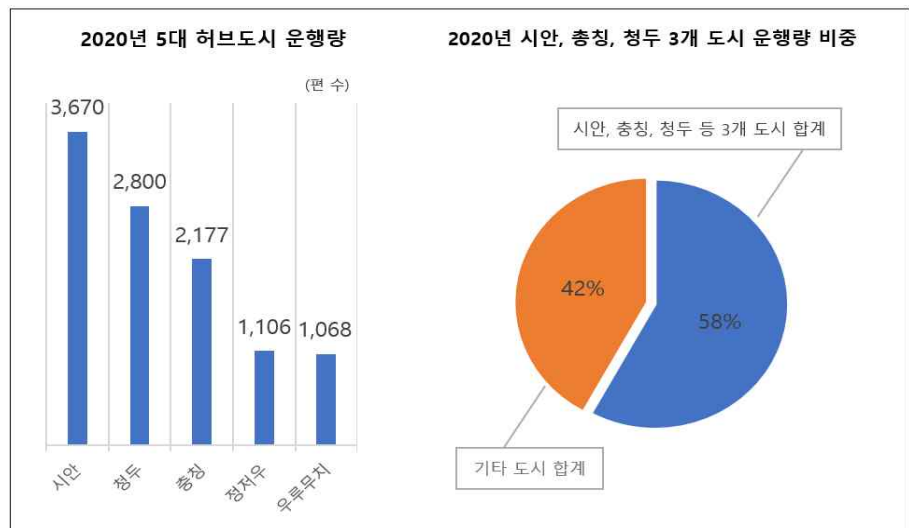
| 구분 | 운행량 | 운송량 |
|------|--------|-------|
| 2013 | 80 | - |
| 2014 | 308 | 2.6 |
| 2015 | 815 | 6.9 |
| 2016 | 1,702 | 14.0 |
| 2017 | 3,673 | 31.8 |
| 2018 | 6,363 | 54.2 |
| 2019 | 8,255 | 72.5 |
| 2020 | 12,400 | 113.5 |

자료 : CRCT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를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자료 : 중국국가철로그룹, 「2020년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KMI 작성.

중~유럽 화물열차, 코로나19로 운행량 및 운송량 크게 늘어나

2013년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중-유럽 화물열차 운행량과 '컨' 운송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에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철도 운송인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운송량이 급증했고 연간 운행량이 최초로 1만 편을 돌파했다. 2020년 중-유럽 화물열차 운행량은 1만 2,400편, '컨' 운송량은 113.5만 TEU로 전년 대비 각각 50%와 56% 대폭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중국에 중-유럽 화물열차를 개통한 도시는 29개이며, 중-유럽 화물열차의 시발점인 충칭에 이어 개통된 시안, 광저우, 창샤, 우한, 이우, 우루무치 등지에서도 수송량이 늘고 있다. 주요 운송 품목은 의류, 완구, 가전 제품 또는 지역 특산품 등으로 다양하다.

현재 중-유럽 화물열차의 5대 허브도시는 시안, 청두, 충칭, 정저우, 우루무치이며, 2020년 운행량은 시안이 가장 많고 청두, 충칭, 정저우, 우루무치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시안과 충칭, 청두의 3개 도시의 합계 운행량은 2,000편을 넘어 전국의 58%를 차지했다.

중국과 유럽간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을 촉진해온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향후 각국의 물류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어 중-유럽간 꾸준한 무역 성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전망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기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이슈 포커스 : '14·5' 기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2021년 3월 4일~11일 개최된 중국 '양회(兩會)'에서는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개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를 비롯한 다양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14·5' 기간(2021년~2025년)은 중국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이자 '두 번째 100년 목표'를 향해 나가는 첫 번째 5년이다.¹⁾ 이에 이번 이슈 포커스에서는 지난 호(제21-5호) <KMI 중국리포트>에 이어 '양회'에서 의결된 <국가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개요>에 담긴 향후 중국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4·5' 기획 및 2035년> 기간 전략 방향 및 목표

총 19편, 65장의 내용으로 구성된 <'14·5' 기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개요>는 중국의 향후 5년 및 15년 청사진을 제시하는 강령적 문건으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발전 방향과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14·5' 기획 및 2035 장기목표>는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새로운 발전 이념(혁신·협조·녹색·개방·공유)을 관철하고, 쌍순환 발전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①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혁신 중심의 고품질 공급으로 신규 수요를 선도 및 창출, 공급 시스템의 탄력성 및 국내 수요에 대한 적합성 제고, ②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완전한 내수 시스템 육성 가속화, 수요측 관리 강화, 거대한 내수 시장 구축, ③ 확고한 개혁 추진, 경제 순환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벽 해소, 생산 요소의 순환, 생산-분배-유통-소비의 유기적 연계 추진, ④ 개방 확대, 요소 흐름의 개방을 지속 심화, 제도적 개방 꾸준히 확대, 국내 경제 순환 시스템에 의존하여 글로벌 요소자원 유치 및 활용, ⑤ 국내 대순환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 국제 순환을 통한 국내 대순환의 효율성과 수준 향상, 국내 및 국제 쌍순환 발전 촉진을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다.

1) 중국은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첫 번째 100년 목표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사회주의에 진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 100년 목표는 신중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를 다시 2단계(2021~2035, 2035~21세기 중엽)로 구분하여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KIEP,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12.2., Vol. 20 No. 29.)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표 1] '14·5' 기간 경제사회 발전 주요 지표

| 구분 | 지표 | 2020년 | 2025년 | 연평균/누적 | 비고 |
|------|-------------------------------------|-------|-------|-------------------------------------|----------------|
| 경제발전 | GDP 성장률(%) | 2.3 | — | 합리적 구간 유지 매년 상황에 따라 제시 | 예상 목표 |
| |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율(%) | 2.5 | — | GDP 성장률 이상 | |
| | 상주인구 도시화율(%) | 60.6* | 65 | — | |
| 혁신촉진 | 전사회 R&D 투입비용 증가율(%) | — | — | >7, '13·5' 기간 실질 투입비용보다 많이 투입 | |
| |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만명(건) | 6.3 | 12 | — | |
| | GDP 대비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 7.8 | 10 | — | |
| 민생복지 | 1인당 가치분소득 증가율(%) | 2.1 | — | GDP 증가율과 기본적으로 동기화 | |
| | 도시 조사실업률(%) | 5.2 | — | <5.5 | |
| | 라이센스 보유(보조) 의사 수/천명(인) | 2.9 | 3.2 | — | |
| | 기본 연금보험 가입률(%) | 91 | 95 | — | |
| | 3세 이하 영아 탁아수/천명(인) | 2.9 | 3.2 | — | |
| | 평균 예상 수명(세) | 77.3* | — | (1) | |
| | 노동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년) | 10.8 | 11.3 | — | |
| 녹색생태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 감소율(%) | — | — | (13.5) | 강제 이행 목표 |
| |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율(%) | — | — | (18) | |
| | 지급 이상 도시의 대기질 우량 일수 비율(%) | 87 | 87.5 | — | |
| | 3급수 이상 지표수 비율(%) | 83.4 | 85 | — | |
| | 삼림 피복률(%) | 23.2* | 24.1 | — | |
| | 곡물 종합 생산능력(억톤) | — | >6.5 | — | |
| 안전보장 |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억톤 표준석탄) | — | >46 | — | |

주: 1. () 내 수치는 5년 누적 수치, *는 2019년 수치, 2020년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예측치임.

2.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비화석 에너지 생산능력의 합을 말함.

3. 2020년 지급 이상 도시의 대기질 우량 일수 비율과 3급수 이상 지표수 비율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연도보다 많이 높음.

자료: 中国政府网,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http://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92681.htm(검색일: 2021.3.15.)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이러한 전략적 방향 하에 중국은 2035년까지 중진국 수준의 1인당 GDP 달성 등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제시하고, 경제발전, 개혁개방, 사회문명 수준, 생태문명 건설, 민생복지, 국가 거버넌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14·5' 계획> 기간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중 경제발전 목표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5개년 GDP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매년 상황에 따라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전체 노동 생산성 성장률은 GDP 성장률보다 높게 방향성을 잡았으며, R&D 비용 투입은 연평균 7% 이상,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65%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내수시장 확대, 경제구조 최적화, 혁신능력 대폭 향상, 산업기반 고급화, 산업 체인의 현대화 수준 대폭 제고, 농업기반 안정성 강화, 도시 및 농촌 지역 협동발전 강화, 현대 경제시스템 구축 추진 등도 경제발전 목표로 제시했다.

개혁개방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완비,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 기본 구축, 시장주체 보다 활성화, 지적재산권 시스템 개혁, 요소의 시장 지향적 배치 개혁, 공정한 경쟁 시스템 완비,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경제 체제 기본 형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생태문명 건설 측면에서는 토지 공간 개발·보호 구도 최적화, 생산·생활 방식의 녹색 전환 효과 제고, 에너지 자원의 보다 합리적인 배치 및 이용 효율 대폭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각 13.5%와 18% 줄이고 삼림 피복률은 24.1%로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속 감소, 생태환경 지속 개선, 생태 안전장벽 강화, 도농 주거환경 개선도 목표로 제시했다.

민생복지 측면에서는 보다 완전하고 양질의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 조사업률은 5.5% 이내로 유지,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GDP 성장률과 기본적으로 동기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노동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은 11.3년으로, 기본 연금보험 가입률은 95%로 목표를 2020년 대비 높게 설정했으며, 평균 수명도 1년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밖에도 빈곤 퇴치 성과를 확산하고 농촌 진흥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 <'14·5' 계획> 기간 해운·항만·물류 분야 주요 정책

<14·5 계획> 중 해운·항만·물류 분야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통강국 건설 가속화

현대화된 종합 교통운송체계를 건설하고 각종 수송 방식의 통합발전을 추진하며 네트워크 효과와 운영 효율을 향상시킨다. 세계적인 항만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내하의 고등급 항로 확장을 추진한다. 종합교통허브를 구축하고,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교통허브 배치를 최적화한다. 화물의 복합운송을 발전시켜 전구간 '원스톱, 하나의 B/L' 서비스를 보급하며, 중-유럽 화물열차 집결센터 건설을 추진한다. 교통강국 건설에는 [표 2]의 해운·항만 시설 및 물류허브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표 2] 교통강국 건설공정

| 구분 | 주요 프로젝트 |
|------------|--|
| 해운항만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삼각주, 웨강아오(粵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에 세계적인 항만군 건설 · 양산항 소양산 북측, 톈진 베이징(北疆)항구 C구간, 광저우 난사(南沙)항 5기, 선전 옌텐항 동구 등에 컨테이너 부두 건설 · 차오페이톈(曹妃甸)항의 석탄 운송능력 확대 · 저우산(舟山) 강해(江海) 연결 운송센터, 베이부만(北部湾) 국제관문항, 양푸(洋浦) 허브항 건설 |
| 종합교통, 물류허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개 정도의 국가 물류허브 건설 추진 · 국제우편물류센터 건설 가속화 |

자료: 상동.

2) 디지털 산업화 가속화 및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 추진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등 신형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5G 응용 환경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능형 교통, 스마트 물류, 스마트에너지, 스마트의료 등 중점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기업의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 등 데이터 개방, 제3의 빅데이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장려한다.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개조를 가속화하며,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클라우드소싱, 스마트 물류, 신(新)소매 등의 신성장 분야를 육성한다.

[표 3] 디지털화 활용 분야

| 구분 | 주요 내용 |
|----------|--|
| 스마트 교통 | · 스마트 철도, 스마트 민항, 스마트 항만, 디지털 항로 건설 |
| 스마트 제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의 네트워크화, 생산 단계의 디지털화 연결 및 공급사슬과의 시너지 촉진 · 생산 데이터의 연계성, 제조의 유연화, 제품의 개별화, 관리 스마트화 추진 |
| 스마트 커뮤니티 | · 무인 물류 배송 체계 구축 |

자료: 상동.

3) 신형 인프라 건설 가속화

디지털 전환 강화, 스마트 업그레이드, 융합 혁신 지지를 위한 정보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추진한다. 5G 네트워크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6G 네트워크 기술역량을 사전에 확보한다. 사물인터넷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전국 통합 빅데이터센터를 여러 개 설립하고 국가 차원의 허브 여러 곳과 빅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E급 및 10E급 슈퍼 컴퓨팅 센터를 건설한다. 교통, 에너지 등 전통적인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신형 인프라 표준체계를 구축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규칙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4) 지역별 중대 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

창장경제벨트의 발전을 위해 창장경제벨트 지역에서 선박 오염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며, 창장 중심의 종합교통운송체계를 설계한다. 삼협허브의 병목문제를 완화하며, 창장 주변 고속철도 및 화물철도 건설을 가속화 한다. 창장 삼각주 일체화 발전 수준 제고의 일환으로 창장삼각주 항만군 일체화를 추진하며,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린강 신구역의 개방형 경제집적 기능을 강화하고 상하이, 쑤저우, 저장, 안후이 자유무역시험구간 연계 발전을 심화시킨다.

웨이강아오 대만구 건설의 일환으로 항만과 공항 기능 배치를 통합적으로 계획하며, 도시간 철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해운 및 항공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한다. 통관모델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사람, 화물, 차량의 편리하고도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시킨다.

5) 지역 개방 분포 최적화

동부 연해지역과 초특대 도시의 선도적 개방 지위를 공고히 한다. 중서부와 동북지역은 개방 속도를 높이고 국내외 산업 이동을 계승하도록 하며, 글로벌 중요 가공 제조기지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광시(广西)자치구를 대 아세안 개방·협력의 거점, 윈난성은 남아시아, 동남아 및 환인도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센터로 건설하도록 지원한다.

6) 수출입 협동 발전 추진

국제전자상거래, 시장구매 무역 등 새로운 모델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해외 창고를 건설을 독려하고, 국제무역 산업사슬의 원활한 공급망을 보장한다. 서비스 무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관련 시범 플랫폼의 건설을 추진하여 무역의 디지털화 수준을 제고한다.

7)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역 네트워크 구축

FTA를 한층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자유무역지역 분포를 최적화하고 RCEP 조기 이행을 추진하며, 한·중·일 FTA 협상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면서 아태지역 FTA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FTA 건설 수준을 격상시키고,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CPTPP 참여를 적극 고려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8) 대외개방 플랫폼 기능 제고

자유무역시험구의 분포를 개선하고 보다 큰 개혁 자주권을 부여한다.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화물무역은 무관세, 서비스무역은 비준과 함께 영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무역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하고, 시장접근성을 대폭 완화하며, 극 간소화된 투자제도를 전면 추진한다. 하이난자유무역항법을 제정하여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도 체계를 초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국가급 신규 및 개발구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종합보세구역은 높은 수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준의 개방을 촉진하며, 변방의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역, 국경 경제협력구역의 기능을 개선한다. 닝샤(宁夏), 구이저우(贵州), 장시(江西)성을 내륙 개방형 경제시범구역으로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9)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을 위한 인프라 상호 연결 및 유통 추진

‘6개 회랑, 6개 도로, 다수 국가 다수 항만’을 기본 구조로 신유라시아랜드브릿지 등 경제회랑의 주도 하에 중-유럽 화물열차, 육해 신통로 등 대통로와 정보고속도로를 핵심으로 하고 철로, 항만, 파이프라인 등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육해상 무역의 신통로를 건설한다. 중-유럽 화물열차 운행을 질적으로 제고시키고 국제육상운송무역규칙의 제정을 추진한다. ‘실크로드 해운’ 브랜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푸지엔(福建)성 및 신장을 ‘일대일로’ 핵심 지역으로 건설한다. ‘일대일로’ 공간정보회랑 건설을 추진하며, ‘공중 실크로드’를 건설한다.

10)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현대화 수준 제고

업종별로 공급망 전략 설계와 정교한 시책을 추진하여 보다 강력한 혁신력, 고부가가치, 안전성 및 신뢰성을 구비한 산업사슬 공급망을 형성한다. 또한 고속철도, 신에너지, 선박 등 분야의 산업사슬 경쟁력을 공고히 한다.

11) 제조업의 최적화 업그레이드 추진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특정 산업을 지정해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혁신 산업 분야에는 선박과 해양공정 장비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향상을 위해 크루즈선, 대형 LNG선과 심해 오일가스 생산플랫폼 등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중대 기술장비 분야에 포함시켰다.

12) 제조업 원가 및 부담 절감 추진

제조업 기업이 전력 시장화 거래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항만·해운·도로·철도 운송 등 물류비용을 낮추며, 관련 기업의 요금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13) 소비의 전면 촉진

국제소비 중심도시를 건설하며, 지역 소비센터를 구축한다. 전자상거래의 농촌 진출을 확대하며, 농촌 소비의 단계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주민 소득 증대와 과중한 부담 감소를 통해 중간 소득 집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14) 유통체계의 지원 역할 강화

유통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상품서비스 유통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유통효율을 높이며 전 사회 거래 원가를 낮춘다. 현대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콜드체인 물류의 발전을 촉진한다. 물류허브 시설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국가 물류허브 및 핵심 콜드체인 물류기지의 시설을 개선한다. 농촌에 물류배송체계를 구축하고 고속철도를 이용한 화물 특송을 발전시킨다. 또 국제항공화물 운송능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력을 강화하고 국제해운 경쟁력을 제고한다. 국제물류루트를 최적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대 유통기업을 육성한다. 상거래 유통시설의 개조, 언택트 교역 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하며, 상거래 유통 표준화 건설과 녹색 발전을 강화한다. 신속하고 충격에 강한 비상물류체계 구축을 촉진한다.

3 <'14·5' 계획> 기간 해양 분야 주요 정책

아래는 <14·5 계획> 중 해양 분야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다.

1) 해양경제 발전공간 적극 개척

육해(陸海) 총괄, 사람과 바다(人海) 화합, 협력상생을 견지하고, 해양생태 보호, 해양경제 발전과 해양권익 수호를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해양강국 건설을 가속화한다.

(1) 현대 해양산업 체제 구축

해양공정, 해양자원, 해양환경 등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획득한다. 해양공정 장비와 해양 바이오 의약품 산업을 육성하고 해수 담수화와 해양에너지 규모화 활용을 추진해 해양문화관광 개발 수준을 제고한다.

근해에 녹색 양식 배치를 최적화하고 해양목장을 건설하여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을 발전시키며, 일부 질이 높은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와 특색화 해양산업군을 건설해 북부, 동부, 남부 3대 해양경제권 발전 수준을 전면 제고한다. 또한 연해 경제벨트를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해양 협력을 심화시킨다.

(2)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환경 구축

연해, 유역, 해역을 일체화한 종합 관리체제 구축을 모색하다. 간척에 대한 통제관리를 엄격히 하고, 해안 지대에 대한 통합관리와 연해습지 보호를 강화한다.

해양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 하천의 단면 수질을 보장한다. 중요 해역에 대한 통합관리 추진을 가속화하고, 유역-하구-연안 해역 오염방지 연동체제 구축, 아름다운 해만 보호 및 건설 추진 등을 가속화한다.

해상 기름 유출, 위험 화학물질 유출 등 중대한 환경 리스크에 대비하고 해양 자연재해와 돌발 환경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해안선 보호, 해역과 무주민의 섬을 유료사용 제도를 완비하고, 해안 건축 퇴행선 제도와 해양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를 탐구하며, 자연 해안선 보유율은 35% 이상으로 유지한다.

(3)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 심도 있게 참여

블루 파트너십을 적극 발전시키고, 국제 해양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 규칙 제정 및 실시에도 깊이 있게 관여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해양질서 구축과 해양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보호, 과학연구와 해상수색·구조 등 분야에서 연해 국가들과 실무협력을 심화시키고 심해의 전략적 자원과 생물 다양성 조사평가를 강화한다.

북극에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빙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남극에 대한 보존과 이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정세에 대한 연구 및 판단, 리스크 예방과 법리 투쟁을 강화하고, 해사 사법 건설을 강화하며, 국가의 해양권익을 단호히 보호한다. 또한 해양 기본법 입법을 질서 있게 추진한다.

2) 생태계의 품질 및 안정성 제고

산(山)·수(水)·임(林)·전(田)·호(湖)·초(草)의 체계적인 관리를 견지한다. 생태계의 자기복원능력과 안정성을 높이고 자연생태계의 안전한 경계를 지켜주며, 자연생태계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을 촉진하는데 노력한다.

(1) 생태 안정장벽 체계 정비

국토의 공간 계획과 용도의 통제를 강화하며 생태보존 레드라인, 영구기본농지, 도시개발경계, 각종 해역보전선을 획정한다. 황하중점생태구역, 창장중점생태구역, 연안벨트 등의 생태장벽 건설을 신속히 추진한다.

창장, 황하 등 큰 강과 큰 호수의 습지 생태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중요 생태복도 건설과 보호를 강화하며, 천연림과 습지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습지보호율을 55%까지 제고한다.

(2) 자연보호지 시스템 구축

자연보호지의 보호범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기능별로 구역을 획정하며, 각 보호지를 통합하고 최적화하여 국립공원을 주체, 자연보호구를 기반으로 하여 각 종류의 자연공원을 보조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구축한다.

자연보호지역내 비생태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핵심지역 내 주민, 경작지, 광권의 질서 있는 퇴거를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국립공원 관리체제와 운영체제를 보완하고, 일련의 국립공원을 통합한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중요사업, 생물다양성 보호 네트워크 구축, 국가중점보호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복구, 외래종 관리 강화 등을 실시한다. 생태보호와 토지·해역 이용 복구 등 정책, 그리고 자연보호지, 생태보호 레드라인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고 생태계 보호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3) 생태보호 보상체제 정비

중점 생태기능 구역, 중요 수계원 및 자연보호지에 관한 이전 지급을 강화한다. 수혜 지역, 보호 지역과 유역의 상하류 지역에서 자금 보상, 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평적 생태계 보상이 이뤄지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시장화 및 다원화된 생태보상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 자본의 생태계 보전 참여를 장려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규칙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삼림, 초원, 습지 생태 보상제도를 개선하며, 창장과 황하 등 중요 유역에서는 유역 생태보상 메커니즘의 수립을 추진한다. 생태 제품의 가치 실현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창강 유역과 삼강원(三江源)국가공원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태보호 보상조례를 제정하고 실시한다.

[표 4] 중요 생태계 보호 및 복구사업

| 구분 | 주요 내용 |
|------------------------|--|
| 창장중점생태지역 (전남생태벽 포함) | · 횡단산악, 암용석사막화구, 삼협, 동정호, 파양호 등을 중심으로 삼림 품질 정밀 증진, 하호 습지 복구, 석사막화 종합 관리 등을 추진하여 희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회복을 강화하고, 수림 110만 헥타르 조성을 완료하며, 500만 헥타르의 수토 유실 관리, 100만 헥타르의 석사막화를 관리 |
| 해안대 | · 황보하이(黄渤海), 창강삼각주, 광둥-푸젠-저장 연해지역, 웨강아오 대만구, 하이난도, 베이부완 등을 중심으로 자연 해안선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고, 해안선 길이를 400km, 연해습지 2만 헥타르를 정비하여 방호림을 11만 헥타르를 조성 |
| 자연보호지 및 야생 동식물 보호 | · 삼강원, 동북호와 표범, 판다 등 국가공원의 조성을 추진 · 진령 황허커우 등 국가공원을 신규로 통합 설치 · 희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유전자 보존창고와 구조생육장소를 조성하여 48종의 극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50종의 극도소종 식물들을 구조 |

자료: 상동.

3) 환경품질 지속 개선

(1) 오염방지 활동 심도 있게 추진

원천 방지와 종합 시책을 견지하고, 오염물 협동통제와 지역 협동관리를 강화한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유역 협동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중점 유역, 중점 호수, 도시 수역과 연안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아름다운 강과 호수의 보존과 건설을 추진한다. 도시 음용수 수원지의 규범화 건설을 추진하고, 중점 유역 중오염 기업에 대한 이전 개조를 추진한다. 오염된 농경지와 건설부지의 관리·복구를 추진하며, 수변과 토지 환경 리스크를 합동적으로 예방한다. 플라스틱 오염의 전 사슬 방제를 강화하며, 새로운 오염물 관리를 중요하게 다룬다.

(2) 환경 인프라 수준 전면 제고

오수·폐기물·고체폐기물·위험폐기물·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모니터링·감독 능력을 모두 갖춘 환경기반시설 체계를 구축한다.

도시로부터 건설도시와 농촌으로 확장하여 커버하는 환경기반시설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도시의 오수 차별화 처리에 관한 정확한 기준의 제고를 추진하고, 수자원이 부족한 지급(地级) 이상 도시의 오수 자원화 이용률이 25%를 넘어야 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규회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3) 환경 리스크 철저히 통제

중점 위험원 평가·조기경보를 긴급대처 메커니즘을 철저히 수립한다. 고체 폐기물의 불법 퇴적을 전면적으로 단속하며, 위험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및 리스크 예방능력을 제고한다. 중점 지역·중점 업계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강화한다.

독성 유해화학물질 환경 리스크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중점지역 위험화학물질 생산업체의 이전과 개조를 완성한다. 핵 및 방사능 안전감독을 엄격히 하여 방사능 오염 방지를 추진한다. 생태환경 돌발사건 발생 후의 평가시스템 및 대중건강 영향 평가제도를 수립한다. 고위험 영역에서는 환경오염 강제책임보험을 추진한다.

(4) 기후변화 적극 대응

2030년 기후변화 대응국가의 자주적 기여(INDC) 목표를 실현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피크 목표 달성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에너지 소비 총량과 강도에 대한 2중 규제 제도를 보완하고,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한다. 탄소강도 제어 위주, 탄소배출 총량 제어를 보조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조건부 지방과 중점 업계, 중점 기업이 먼저 탄소배출 피크에 도달하는 것을 지원한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저탄소 안전효율 이용을 촉진하고, 공업·건축·교통 등의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심층적으로 추진한다.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정책과 조치를 취한다.

지구 온난화가 우리나라의 수용력이 취약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측과 평가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건설, 농업 생산, 인프라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선도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남남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 현대 환경관리 체계 정비

지상·지하 및 육해 통합의 생태환경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오염배출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고정 오염원 배출 허가서의 검증 및 발급을 실현하고, 공업 오염원의 기한 내 기준도달 배출을 촉진하며, 오염 배출권, 에너지 사용권, 용수권, 탄소 배출권의 시장화 거래를 추진한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절약 규제성 지표 관리를 보완하며, 하천·호수 관리보호 체제를 개선하고, 하장제(河长制)와 호장제(湖长制)를 강화한다.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법 집행 개혁을 추진하여, 생태환경 공익소송 제도를 완비한다. 환경보호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기업 환경관리 책임제도의 구축을 강화하며, 대중의 감시와 피드백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사회조직과 대중이 환경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규칙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4) 발전방식의 녹색전환 가속화

생태 우선과 녹색 발전을 견지하고, 자원 총량 관리, 과학적 배치, 전면적인 절약 및 재활용을 추진하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 및 생태환경에 대한 수준 높은 보호를 협동적으로 추진한다.

(1) 자원이용 효율성 전면 향상

국가 절수 활동을 실시하여 수자원 강성 규제 제도를 수립하고, GDP 단위당 용수량을 16% 정도 감소시킨다.

(2)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

순환경제 이념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다차원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단지의 순환화 리모델링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산업사슬을 보완·확장하고, 폐기물 재활용과 오물 집중 처리를 추진한다. 대형 고체 폐기물의 종합 이용을 강화하여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규범화한다.

폐품회수 시설 계획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의 폐품회수 체계를 보완한다. 생산 기업의 "역 회수" 등 모델을 추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으로 오염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산자 책임확대제도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며, 택배 포장의 감소, 순환과 표준화를 추진한다.

(3) 녹색발전 정책체계 구축

녹색발전의 법적·정책적 보장을 강화한다. 에너지절약 및 자원에 대한 종합적 이용에 유리한 세수정책을 시행하며, 녹색 금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자연자원의 유료사용 제도를 보완하고, 자연자원, 오수 폐기물 처리, 물 및 에너지 이용 등 분야에서 가격형성 메커니즘을 혁신한다. 수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업계에 대해 수자원 이용 정액관리를 강화하고, 생태문명 시범구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표 5] 환경보호 및 자원 절약 프로젝트

| 구분 | 주요 내용 |
|------------------|---|
| 수질 오염 방지와 수생태 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오수의 관리 효과를 공고히 하여, 363개 현급 도시의 1500단계의 오수 종합 처리를 추진 · 태호(太湖), 소호(巢湖), 진지(滇池), 단강구저수지(丹江口水库), 열해(洱海), 백양디안(白洋淀), 파양호(潘阳湖), 동정호(洞庭湖), 차간호(查干湖), 우량소해(乌梁素海) 등 주요 저수지 오염방지와 생태 복원을 강화 · 융딩(永定)하 및 무란시(木兰溪)에서 종합 관리를 실시하고, 화북 지역 및 기타 중점 지역의 지하수 종합 관리와 황하 하구의 종합 관리를 가속화 |
| 도시 오수 폐기물 처리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 수집 관리망 8만km 신설, 하수 처리 능력 2000만m³/일 추가 · 오물 소각 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도시 생활 오물 300만톤 초과하는 지역에서 원생 폐기물은 무매립 실현 · 소형 생활오물 소각시설 건설 시범사업 추진 |
| 자원 절약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차대한 에너지 절약 저탄소 기술 산업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에너지 소비 제로 건축물, 탄소 배출 제로, 탄소 포집 이용 및 저장 등 중차대한 프로젝트 시범 추진 · 60개 대도시에 폐물자 재활용 체계 건설 |

자료: 상동.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규칙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4) 녹색경제 대폭 발전

에너지 소비가 크고 배출이 높은 사업을 맹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단호히 억제하고, 적극적으로 녹색 전환 발전을 추진한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청정생산, 청정에너지, 생태환경, 인프라 녹색 업그레이드, 녹색 서비스 등 산업을 발전시키고, 계약 에너지 관리, 계약 절수 관리, 환경오염 제3자 관리 등 서비스 모델을 보급한다.

5)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을 위한 문명교량 건설 및 글로벌 거버넌스체계 적극 참여

기후변화 대응, 해양협력, 야생동물보호, 사막화 방지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녹색 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한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발전시켜 각국간 협조 및 협력을 추진하고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며 개발도상국가와의 단결협력을 강화한다. 다자주의 및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공영의 원칙을 견지하여 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 및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수호하여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등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혁 및 건설에 적극 참여한다.

6) 지역별 중대 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발전 추진의 일환으로 톈진 빈하이 신구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장자커우(张家口)의 수도 수원함양기능 지구와 생태환경지 구역의 건설을 지원한다.

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장 전 유역을 단위별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도시 오수 폐기물 처리, 산업 오염 관리, 농업면원 오염 관리, 미광고 오염 관리 등의 공사를 추진한다.

7) 원천기술, 선도기술 강화

심지(深地)·심해(深海) 등 선도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전망성·전략성이 있는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오일가스 탐사·개발 등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한다. 심지·심해 및 극지 탐사 등 선도분야 핵심기술로 △ 심해 운송보장 및 장비 시험선, 극지 입체관측 플랫폼 및 중형 쇄빙선 등의 연구·제작, △ 자오룽(蛟龙) 심해 탐사 제2기, 웨룽 극지 탐사 제2기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8) 현대 에너지시스템 구축

에너지 혁명을 추진하고, 청정한 저탄소·안전·효율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 및 에너지 공급보장 능력을 제고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질서 있게 추진한다. 심해, 심층, 비상규적인 오일가스자원의 이용을 가속화하여 석유·가스의 추가 생산을 촉진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9) 미래산업 전망 계획

심해개발, 수소에너지 저장 등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변혁 분야에서 미래산업 인큐베이팅과 가속화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며, 미래산업을 기획한다.

10) 수리 기반 시설 건설 강화

수원(水源)지역의 보호복구를 강화하고, 중점 하천·호수 보호와 종합적인 관리 강도를 높여서 물 맑고 언덕이 푸른 생태계를 회복한다.

11) 현대 문화산업 체계 보완

문화와 관광의 융합발전 추진의 일환으로 크루즈·요트의 발전정책을 개선한다. 또한 문화번영 발전사업의 하나로 관광목적지 품질 제고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하이난 국제관광 소비중심, 웨강아오 대만구 세계급 관광목적지, 창장 국제황금관광벨트, 황하문화관광벨트 등을 구축한다.

4 <'14·5' 계획> 기간 수산 분야 주요 정책

<14·5 계획> 중 수산 분야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시장 유통시설 개조 및 업그레이드

농수산물시장 등 상거래 유통시설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비대면 거래 서비스를 발전하며 상거래 유통 표준화 건설과 녹색 발전을 강화한다.

2) 농수산물 종자자원 보호 강화

종자 자원 보호 이용과 종자은행 건설을 강화해 종자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농업 양종 기술의 난관을 강화하고, 생물 육종의 산업화 응용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종업 선두 기업을 육성한다. 농업 과학 기술 혁신 시스템을 완비하고, 농업 기술 보급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며, 스마트 농업을 건설하다. 동물 방역과 농작물 병충해 방제를 강화하고 농업 기상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가 가금 및 수산물 자원 창고·종자 보호구·유전자 은행을 신축·확장하고, 국가급 핵심 육종구 건설을 추진한다.

3) 농수산업 구조 조정, 수산 생태 건강양식 강화

농업 생산 배치를 최적화하여 우세한 농산물 산업벨트와 특색 있는 농산물 우위 지역을 건설한다. 양곡과 경식, 농림어업 조성을 추진하여 재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현대 축(수)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수산물 생태의 건강한 양식을 촉진하다.

4) 농수산업 오염 정돈 및 환경보호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농수산업 오염원 정돈을 위해 장강과 황하 등 주요 유역 환경 민감구에 200개 농업 오염원 종합 단속 시범 현(縣)을 건설하고, 가축가금 분변 자원화 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산양식 생산지역에서 양식폐기물 처리를 추진한다.

창장경제벨트 환경문제 정돈을 위해 생태 우선, 녹색 발전과 공동 보조를 견지한다. 생태환경의 두드러진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강 전 유역을 단원별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도시 오수 폐기물 처리, 산업 오염 관리, 농업 면원 오염 관리, 선박 오염 관리, 미광고 오염 관리 등의 공사를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녹색 발전 시범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츠수이(赤水) 하 유역의 생태 환경 보호를 추진한다. 아울러 창장 10년 금어를 실시한다.

5) 농수산물 콜드체인 물류시설 건설

30개 국가급 및 70개 지역 농수산물 콜드체인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원산지 시장 저장창고의 신선도 유지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며, 가축가금 지정 도살가공업체의 콜드체인과 운송 시설을 보완한다.

6) 스마트 농수산업 발전

농수산업 기계장비 분야에서 녹색 스마트 양식 사료투기, 환경 모니터링, 채취, 폐기물 재활용 등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스마트 농수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수산업 생산경영과 관리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농수산업 및 수리 분야에서는 대전작물의 정확한 파종, 비료 시약, 정밀 수확, 시설 원예, 가축·수산 양식의 스마트 기술 응용을 추진한다.

5 요약 및 시사점

2021년 3월 개최된 중국 ‘양회’에서는 <국가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개요>를 통과시켰다. <‘14·5’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는 향후 5년 및 15년간 중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14·5’ 계획 및 2035 장기목표>는 그동안 양적 위주의 고도성장에서 향후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협조·녹색·개방·공유’로 대변되는 새로운 이념을 관철하고 쌍순환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것을 전략적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적 방향 하에 중국은 경제발전, 개혁개방, 사회문명 수준, 생태문명 건설, 민생복지, 국가 거버넌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14·5’ 계획> 기간의 목표를 제시했으며, 경제사회 발전 주요 지표의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예상 목표치와 강제 이행 목표치를 구분해서 발표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질적 발전으로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4·5’ 계획 및 2035 장기목표>의 해양수산분야별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1) 해운·항만·물류분야

<'14·5' 계획 및 2035 장기목표>의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는 △ 교통강국 건설, △ 디지털 산업화 가속화 및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 추진, △ 신형 인프라 건설 가속화, △ 지역별 중대 전략 실시 및 지역 개방 분포 최적화, △ 수출입 협동 발전 추진, △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역 네트워크 구축, △ 대외개방 플랫폼 기능 제고, △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을 위한 인프라 상호 연결 및 유통 추진, △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현대화 수준 제고, △ 제조업의 최적화 업그레이드 추진, △ 제조업 원가 및 부담 절감 추진, △ 소비의 전면 촉진, △ 유통체계의 지원 역할 강화 등 주요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중국은 교통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징진지, 창장삼각주, 웨강아오 대만구에 세계적인 항만군을 구축할 계획이며, 양산항 소양산 북측에는 피더부두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양산항의 수상 연계운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부산항과 중국화물의 환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항의 중국 환적화물 유지 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범구 제도의 개선 및 혁신을 통한 기능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의 일환으로 중-유럽 화물열차의 허브기능 집적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국제해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기업은 중국의 이러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면밀히 살펴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분야로 크루즈선, 대형 LNG선과 심해 오일 가스 생산플랫폼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박 분야의 산업사슬 경쟁력 강화가 계획되어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스마트 항만, 디지털 항로 건설, 스마트 물류 및 신소매 등 신성장 분야 육성,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디지털화 활용 및 가속화가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 항만 분야는 중국이 거대한 실물 테스트 베드를 활용하여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 관련업체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항만설계 당시부터 5G 기술, 네트워크,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도입하는 종합형 스마트항만 개발은 우리나라 항만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 구축을 위해 국제소비 중심도시 및 지역 소비센터 구축, 중간소득층 증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RCEP의 조기 이행,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인트라아시아 시장의 활성화 및 산업사슬의 재편이 예상되며, 해운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은 사전 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해양분야

해양 분야의 경우 △ 해양경제 발전공간 적극 개척을 위한 현대 해양산업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규회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환경 구축,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참여, △ 생태계의 품질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생태 안정장벽 체계 정비, 자연보호지 시스템 구축, 생태보호 보상체제 정비, △ 환경품질 지속 개선을 위한 오염방지 활동 추진, 환경 인프라 수준 전면 제고, 환경 리스크 철저히 통제, 기후변화 적극 대응, 현대 환경관리 체계 정비, △ 발전방식의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자원이용 효율성 전면 향상,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 녹색발전 정책체계 구축, 녹색경제 대폭 발전, △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을 위한 문명교량 건설과 글로벌 거버넌스체계 개혁 및 건설에 적극 참여, △ 원천기술, 선도기술 강화, △ 현대 에너지시스템 구축, △ 미래산업 전망 계획, △ 수리 기반 시설 건설 강화, △ 현대 문화산업 체계 보완 등 주요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 해양강국 전략 계획을 견지하여 고품질 해양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적으로는 해양공정, 자원,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산업 등 해양관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적으로는 연해경제벨트를 기반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해양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양환경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 관심사가 서로 유사한 해양분야에서는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대일로와 빙상실크로드 관련해서는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임으로 중국의 관련전략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북극전략과 연계하여 전략적인 포지션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분야에서는 양국간의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황해와 발해 수역은 한국의 수산자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수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보호를 위해 상호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중국의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재편이 있을 것이며, 친환경 녹색발전 기조에 따른 각 분야의 기술 개발 및 확보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바,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및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수산분야

수산 분야의 경우 △ 농수산물시장 유통시설 개조 및 업그레이드, △ 농수산물 종자자원 보호 강화, △ 농수산업 구조 조정, 수산 생태 건강양식 강화, △ 농수산업 오염 정돈 및 환경보호, △ 농수산물 콜드체인 물류시설 건설, △ 스마트 농수산업 발전 등 주요 정책들이 반영되었다.

중국 수산업의 스마트·녹색양식 추진 정책은 한국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양식의 경우 중국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양식장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중국의 스마트양식장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에 적합한 경제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양식장 개발과 관련한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스마트양식장은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문이 많고, 향후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수산물 종자자원 보호 강화 관련해서는 국제정세에 변화에 따른 안전하고 안정성 있는 식품공급과 관련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농수산물 콜드체인 산업은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으므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투자가 가능한 업종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수산물 수출제품의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총괄·감수: 한광석 센터장
작성 : 김은우 부연구위원
진선선 연구원
하염희 연구원
장원형 연구원
육천연 연구원

kmishanghai@naver.com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유럽 화물열차 5대 허브도시
- ▶ 이슈 포커스 :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해운 · 항만 · 물류

- 2021년 2월 중국 주요 항만의 생산현황 분석
- 숫자로 보는 "14.5" 웨강아오 대만구
- "70년대생" COSCO 부사장 출신 장웨이(张为) 상하이시 부시장 취임
- 국제물류공급사슬 정보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신형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 발표
- 스마트 선박 및 LNG선박의 표준화 업무 추진 정책 발표
- 산둥 창다오항 첫 통과선박 뱅커링 사업 실시
- 글로벌 암모니아 선박 개발 동향
- 창장 쑤샤(三峡) 지역 선박 오염물 '제로 배출' 계획 실시
- 교통운수부, 항만 위험화물 정리작업 실시 통지
- 하이난 자유무역항 해사특구 2025년까지 기틀 완성
- 샤먼항 전면 스마트화 개조 프로젝트 설비 시범운영 돌입
- 장쑤성, "14.5"기간 교통신용 6대 체계 수립
- 가로막힌 수에즈운하, 중국은 어떤 것이 막혔나?
- 허베이 항만 환경 대기질 순위발표 : 친황다오항 상위 차지
- 재정부 : 항만건설비 취소, 민항발전기금 징수 표준 20% 하향 조정
- 중국조선소 또 27척 건조? MSC의 폭풍 확장

해양 · 수산

- 다롄시(大连市), '빙상실크로드'와 연계하여 동북아 해양중심도시 건설 촉진
- 2020년 중국 연안해역 수질 안정 속 좋아진 추세
- 2021년 중국 전국 해양투기구역 리스트 발표
- 산둥 옌타이(烟台), 중국 해양경제 대도시 건설에 주력
- '펀더우저(奋斗者)호' 심해 유인잠수정 인도
- 산둥 옌타이(烟台), 중국 첫 해양유형 국가공원 신청
- 창장삼각주 해양생태야외기지 학수위원회 설립
- 산둥 첫 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 착공
- 중국, 국제해저관리기구 이사회 B그룹 이사국 연임
- 중국, 가장 큰 해양종합과학조사선 건조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